

“재난기본소득, 더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

군산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 28명 생전 처음 받은 10만원 전액 기탁
“힘들 때마다 국민저력 빛낸다” 칭찬·격려 속 릴레이 기부 기대

“생전 처음 받은 재난기본소득,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써주세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처음 받아보는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힘들 때마다 우리 국민의 저력이 빛을 더 발한다는 칭찬과 격려가 나온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넘기기

위한 연대의식이 시민사회운동으로 확산할 지 주목된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재난기본소득을 모은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주민자치위원 28명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는 재난기본소득을 전액 내놓고 여기에 20만원을 더해 만들었다.



군산시는 주민자치위의 뜻에 따라 이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쓸 계획이다.
나운2동 주민자치위는 앞서 지난 2월과 3월에

도 코로나19로 무료 급식소 운영이 중단돼 급식을 받지 못하는 노인 등을 위해 400만원 상당의 먹거리를 내놔다.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을 지원하는 전주지역에서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지원금 전액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기부하고 싶다”는 전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릴레이 기부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 복분자 이어 ‘명품수박’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순창 고추장, 고창 복분자, 남원 미꾸라지, 벌교 꼬막, 보성 녹차... 지리적 표시제 등록 품목들이다. ‘고창 수박’도 지리적 표시제에 도전한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수박’ <사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명품 수박 산지로서의 고창 브랜드 극대화에 나선다.

현재 고창군에는 ‘고창 복분자’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돼 있다.

고창군은 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의미와 등록 절차를 수박연합회에 안내하고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을 통한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품질, 특성 등을 표시하는 제도다. 지명에 상표권을 부여해 품질과 개성을 높게 되며, 다른 곳에서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고창 수박은 10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차지하며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타벅스코리아와 함께 고창수박을 활용한 음료를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고창에선 현재 965ha에서 875농가가 수박을 재배 중이며 지난 2월 말 수박연합회가 출범했다.

연합회와 농업기술센터는 명품수박 명성 유지를 위해 각종 시범사업 및 농촌개발대학 수박과 운영, 현장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장흥 노력항에 고등어잡이 어선 들어온다

장흥군 어업선단 유치...소형선박 부두 조성 등 노력항 개발계획 수립

장흥군이 제주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을 노력항에 유치했다.

14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인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용천수산과 ‘장흥 노력항 선망어업 선단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용천수산은 지난해 12월 장흥군을 방문해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유치와 가공·유통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장흥군은 용천수산의 제안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다.

선망어업은 6척의 배가 움직이며 고등어 어군을 확인한 뒤 포위해 고등어를 잡는다.

주로 고등어나 전갱이, 참치, 갈치 등을 어획하는 데 선망어업 방식을 이용한다.

선망어업선단은 현재 부산 고등어시장을 중심으로

로 활동하고 있다.

장흥 노력항은 제주도 인근해역에서 하역항까지의 거리, 수도권과의 교통 조건을 고려할 때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흥군은 선망어업 선단 유치를 위해 장흥 노력항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어촌 정주어항 내 선망어업 선단 전진 기지항으로 노력항에 소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6600㎡ 규모의 물양장을 만들 계획이다.

물양장에는 급속냉동실과 저온창고 등이 들어선다.

장흥군 관계자는 “노력항에 선망어업 선단이 들어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과 용천수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흥 노력항 선망어업 선단 유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 제공>

함평중, 교사·학생 쌍방향 원격수업 완벽 “코로나 걱정 없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교육 역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전국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함평중학교(교장 권도현)의 온라인 수업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개학 첫날인 지난 9일 함평중에서는 3학년 학생들의 첫 쌍방향 원격수업이 진행됐다. 설근환 체육교사가 진행한 이날 원격수업에는 함평중 학생 전원이 참석했다. 원격수업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화상회의에 자주 쓰이는 ‘줌(ZOOM)’이 사용됐다. 앞서 함평중에서는 구글클래스룸을 통한 콘텐츠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원격수업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3학년 학생들은 설 교사의 지도 아래 원격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던 체육 수업을 진행했다. 교사가 간단한 과제를 내주면 학생들은 화면 옆 채팅방에 답변을 올리는 방식이었다. 교사가 질문하면 학생들도 곧바로 대답하는 등 응답 역시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졌다.



지난 9일 설근환 교사가 진행한 함평중학교 체육교과 원격 수업을 권도현 교장과 교직원들이 참관하고 있다. <함평중 제공>

수업을 참관한 한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교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날 때에 비하면 다소 소통은 어렵지만, 수업 시간마다 출

석 체크와 소통으로 참여율도 높고 예상보다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돼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정읍시, 축산농가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22대 지원

정읍시는 축산농가에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읍시는 총 사업비 8800만원을 들여 지역 축산농가 22곳의 농장 입구에 자동소독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육우 15농가, 젖소 3농가, 돼지 4농가 등이다. 대당 400만원의 사업비 중 50%인 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시는 이달부터 설치작업 시행을 독려하고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백한 정읍시 축산과장은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정읍 축산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 자동소독기.

에 있어 농장 단위의 소독 실시와 농가 스스로 방역의식을 갖고 소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악성 전염병 예방과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축산 청정 정읍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